조.선.문.화. 르네상스
혹은 다양하고 대중적인 전통문화 접근하기

표정훈 | 출판평론가

우리 전통문화에 오늘날 사람들이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최근 들어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고전과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게 만드는 작업이 출판계에서 활발해지고 있다. 그런 책들이 도서시장에 자주 등장하고 있는 것은 물론, 시장의 반응도 전에 없이 좋은 편이다.

먼저 죽은 번역이 아닌 살아 있는 번역, 즉 엄밀한 연구성과에 바탕을 두고 있으면서도 오늘날 독자들에게 쉽게 다가오기 충분한 고전 번역서가 있다. 16세기 조선 선비 미암 유희춘(1513~1577)이 기록한《미암일기》를 재구성한《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사계절), 그리고 대유학자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 주고받은 편지를 번역한《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소나무)를 예로 들 수 있다. 이들 두 책은 제목부터 예전의 고전 번역서와 다르다. 본래의 한자제목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한자제목을 직역하여 제목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또 하나 중요한 특징은 두 책이 모두 사실상 고전을 재구성했다는 점이다.

《홀로 벼슬하며 그대를 생각하노라》는《미암일기》를 본래 텍스트의 체제를 그대로 따라 완역한 책이 아니다. 관직생활, 살림살이, 나들이, 재산증식, 갈등, 노후생활 등의 장으로 나누어《미암일기》의 내용을 각 장의 주제에 따라 재구성한 것이다. 더구나 각 장에는 풀어 엮은이 정창권 씨(고려대 한국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가 사실상 소설형식을 빌려《미암일기》의 내용을 극화한 부분이 실려 있다. 정창권 씨가《미암일기》텍스트를 완역하는 데 의미를 두고 번역에만 몰두했다면 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기는 했겠지만, 16세기 조선의 사회상을 일반 독자들이 실감하기는 힘들었을 것이다.

《퇴계와 고봉 편지를 쓰다》(소나무)가 보여주는 미덕도 비슷하다. 역사학자 김영두 씨는 편지를 시기별로 정리하면서도 '영혼의 교류가 시작되다', '처세의 어려움을 나누며' 등과 같이 각 시기 편지의 중심 테마를 소제목으로 설정하고, 다시 각 편지에 대해서도 '시대를 위해 더욱 자신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진실한 공부를 방해하는 세 가지', '봄 얼음을 밟는 것같이 두려운 마음으로' 등과 같이 적절한 제목을 붙였다. 그는 번역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원문이 비교적 자유롭게 씌어진 편지글임을 감안해서 되도록 일상의 말투로 자연스럽게 풀었다. 퇴계나 고봉은 훌륭한 성현이고 학자이기 이전에 인간이었다. 편지로 개인적 하소연 하고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다. 그들의 인간적 냄새를 전하기 위해 힘을 빼고 옮겼다.'

두 번째로 일상생활과 풍속을 살피려는 책들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강명관 교수(부산대)의《조선의 뒷골목 풍경》(푸른역사)과 국사학자 김문식, 출판기획자 김정호 씨의《조선의 왕세자 교육》(김영사)을 예로 들 수 있다. 진작부터 풍속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 온 강명관 교수는 '뒷골목'이라는 제목의 말이 보여주듯 공식적 역사 기록에서 접하기 힘든 조선의 다양한 시정市井 풍경과 그 안의 삶의 모습을 입심 좋게 들려준다.

이 책에서 특징적인 것은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 삶의 보편적인 측면에 주목한다는 점이다. 조선의 오렌지족이 그렇고 조선의 거리를 주름잡은 폭력조직들 역시 그러하며 술, 도박, 성性과 관련한 다양한 인간군상과 삶의 드라마가 그러하다.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표현을 절로 생각나게 하기에 충분하다.

《조선의 왕세자 교육》은 왕세자의 교육이라는 주제를 그

세부적인 측면까지 무척 자세하게 천착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왕세자의 일상생활과 그것을 둘러 싼 조선의 궁중풍속이 광범위하고 자세하게 다루어지는 것은 물론, 조선의 왕세자 교육이 조선의 정치 및 사회체제에서 지니는 의미까지 다루려는 야심을 과시한다.

세 번째로 일종의 장르 퓨전화 현상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생물교사 이태원 씨가 집필한《현산어보를 찾아서》(청어람미디어)가 대표적인 예이다. 이 책은 저자 자신의 여행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고전번역, 사상사, 과학사, 생물 관찰기, 생물도감 등을 사실상 모두 겸하는 책이다. 전문 연구자들이 각자의 연구분야에 집중하다보니 보다 큰 틀을 보지 못하는 것과는 달리, 이태원 씨는 '현산어보'라는 텍스트와 정약전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 그 시대를 총체적으로 읽어내려는 의도를 보여준다.

최근 우리 출판계에서 전통문화 르네상스, 좁혀서 말하면 조선문화 르네상스의 분위기까지 감지한다면 과장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보다 다양한 각도에서 전통문화에 접근하려는 태도가 확산되고,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글쓰기를 중시하는 풍토가 자리잡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계도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필자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와 관련하여 박사급의 젊은 연구자들이 대학에 자리잡기 힘들어지고 있는 현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학이라는 학문제도권이 연구자들이 궁극적으로 몸담아야 할 최선의 유일한 적소適所라는 인식이 퇴색되어 갈수록, 그런 연구자들이 광범위한 대중과 의사소통하는 쪽으로 삶의 방향을 정할 가능성도 커진다. 요컨대 특정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출판기획자 및 저술가들이 탄생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출판계의 노력도 남겨진 과제다. 시장성이 검증된 소수의 유명필자들에만 매달리는 태도가 아니라, 가능성 있는 신진 필자를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고전과 전통문화를 어떤 형식에 담아 어떤 방식으로 전달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라는 식의 민족주의적 프리미엄 같은 것에 무임승차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우리 고전과 전통문화 관련 도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데는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하고 싶다. 시장성이 검증된 필자의 원고를 받아 단기간 안에 베스트셀러를 만드는 데 승부를 거는 방법은 곤란하다. 책의 완성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어느 책에서나 필요하지만 이 분야의 책에서는 그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